

###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 아이의 놀이를 관찰하는 대화법

시기이므로 부모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아이의 삶의 기초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이를 양육할 때는 훈육보다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법이 필요하다.

첫째,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어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대충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아이는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가져주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서툰게 이야기할 때 “빨리 말해봐”,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반응하기보다 눈을 맞추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구나, 네 마음이 어땠어?”라고 질문해 주는 것이 좋다. 부모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이는 존중받

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 길러진다.

둘째, 명령과 비난보다 공감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부모가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즉시 지적하고 훈육하려 한다.

물론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 주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블록을 쌓다가 무너뜨리고 울음을 터뜨렸다면 “그것도 못하니?”라고 말하기보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무너져서 속상했구나”라고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좋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우게 된다. 영아의 놀이 상황에서도 공감의 대화는 중요하다.

셋째,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부모는 아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올바른 행

동을 가르치기 위해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뛰지 마!”, “만지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와 같은 말은 순간적으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만 전달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뛰지 마” 대신 “천천히 걸어보자”, “소리 지르지 마” 대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보자”라고 말하면 아이는 행동의 방향을 이해하게 된다. 더 좋은 방법은 아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질문하는 것이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뛰어다니는 아이에게 “OO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으면 아이는 이전 경험을 떠올리며 “천천히 걸어야 해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때 부모가 “엄마 말을 기억해 주어서 고마워”라고 칭찬하

면 아이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부모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준다.

넷째,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울거나 화를 낼 때 어른들은 종종 “울지 마”,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라고 말하며 감정을 억누르려 한다. 하지만 감정은 억압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지 못한 아이는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아두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속상했구나”, “정말 화가 났겠다”, “그럴 수도 있지”와 같은 말로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감정을 인정받은 아이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타인의 감정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또한, 칭찬은 결과보

다 노력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넌 최고야”, “정말 잘했어” 같은 막연한 칭찬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냈구나”, “어제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네”와 같은 말이 아이의 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줄넘기를 세 개밖에 하지 못하던 아이가 다섯 개를 성공했다면 “오늘은 다섯 개나 했네.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참 멋지구나”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다.

유아 양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이 곧 아이의 마음속 목소리가 된다는 사실이다. 늘 비난과 비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을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기 쉽지만, 존중과 공감을 경험한 아이는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며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한다.

양육자의 따뜻한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어 줄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광주시립합창단 ‘독일 레퀴엠’ 공연

오는 11일, 예술의전당...브람스의 인본주의적 걸작

체임버 오케스트라 버전 더 깊고 정교한 치유의 하모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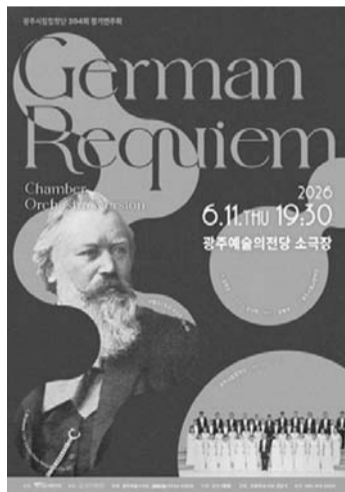
광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임창은, 이하 합창단)이 오는 6월 1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 204회 정기연주회 ‘독일 레퀴엠(German Requiem)’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삶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송고한 안식과 위로를 건네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무대의 중심인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음악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걸작이다. ‘레퀴엠(Requiem)’은 본래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는 진혼곡을 의미하지만, 브람스는 전통적인 라틴어 가사 대신 스스로 선택한 독일어 성서 구절을 사용하여 이 곡을 완성했

다. 이는 심판과 두려움 대신, 슬픔에 잠긴 ‘남겨진 이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인본주의적 시선을 담고 있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대규모 편성의 위압감 대신, ‘체임버 오케스트라 버전(Chamber Orchestra Version)’을 선택하여 차별화를 꾀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예 단원들이 참여하는 이번 협연은 소극장이라는 공간적 특성에 맞춰 더욱 투명하고 정교한 앙상블을 선보인다.

/조선주 기자



## 광양, 반창고갤러리서 ‘눈의 나라 러시아’

오는 23일까지...러시아 작가 12인, 설경 50여점 전시

광양시는 인서리공원 반창고갤러리에서 러시아 리얼리즘 작가 12인의 설경 작품 5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기획전 ‘눈의 나라 러시아’를 오는 6월 2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설원과 눈 덮인 자작나무 숲, 강변과 겨울 들녘 등 러시아의 겨울 풍경을 담은 작품들로 구성됐다.

관객들은 러시아 리얼리즘 미술 특유의 색채와 표현 기법을 통해 이국적인 설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조여름에 한겨울 설경을 감상하며 잠시 더위를 잊는 이색적인 ‘문화 피서’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의 이해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작품을 소장한 갤러리 카르띠나 김희은 대표와 김현호 큐레이터가 러시아 리얼리즘 미술의 특징과 작품 감상 포인트 등을 해설할 예정이다.

전시는 오는 6월 23일까지 인서리공원 반창고갤러리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광양=조순의 기자

## 문화예술 체험에 소풍까지... ‘광주아트피크닉’ 10회 운영

오는 13일 여름캠프 등...11월 14일까지 진행

광주 중의공원 일대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아트피크닉’이 올해 10차례 운영된다.

광주시는 11월 14일까지 중의공원 내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가족 중심 문화예술 축제인 ‘아트피크닉’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첫 아트피크닉은 ‘우리 가족 데뷔전’을 주제로 지난달 16일 열렸다. 또 여름캠프(6월 13일), 여름방학(6월 20일), 가족운동회(9월 5일), 가족명절(9월 12일), 아트캠프(10월 17일), 아트탐험(10월 24일), 가을판타

지페스타(11월 7일), 피날레(11월 14일)를 주제로 아트피크닉이 진행된 다.

황인채 시 문화체육실장은 “아트피크닉은 광주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b>호남매일</b>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정 · 경 부 (062) 362-6116	사 회 부 (062) 362-6226
광 고 국 (062) 363-0005	편 집 국 장 (062) 362-0078	문 체 부 (062) 362-6116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인쇄제작부 (031) 466-1000		
구독료 연액 : 1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견역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mailto: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mailto: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6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문 암.....521-4270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5368-2321

담 양...010-6604-1717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2028-4800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함 평...010-6369-0045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8924-2025